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한반도 전쟁과 핵 대결을 막는 평화의 촛불을 들어요!



3.24(토) 6시, 광화문(예정) 평화의 촛불



한국, 미국, 북한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 활동(한미 연합군사연습,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삼가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평창을 찾은 북한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키자' 고 호응함으로써 **3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평창, 패럴림픽 기간 이후에 **한미 군사연습을 재개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기적처럼 만들어 낸 대화의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또다시 칼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이 끝나기 전에,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북·북미대화가 탄력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대화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시민 행동이 절실합니다. 당국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 대결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절실한 염원을 가지고 **3월 2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에서 전쟁과 대결 반대, 남북/북미 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촛불을 밝힙시다.

소중하게 마련된 평화, 촛불로 지켜냅시다.

촛불은 그 어떤 것 보다 강합니다.

평화 염원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뜻과 의지를 남북미 당국에 밝힙시다.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올림픽이 끝나도,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은
계속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결 말고 대화!
전쟁 말고 평화!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고 극단적인 핵 대결과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군사연습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쌍중단)**하여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핵우산과 북한 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여 한반도가 핵 전장화 되는 것을 막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통일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고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핵대결은 한층 격화됩니다. 남한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합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지금보다 더 큰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